

# 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의 차별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이미경<sup>1</sup> · 이현경<sup>2</sup> · 박창기<sup>3</sup> · 김유림<sup>1</sup> · 김수경<sup>4</sup> · 이해연<sup>1</sup>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김모임간호학연구소 박사과정생<sup>1</sup>,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김모임간호학연구소 교수<sup>2</sup>,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조교수<sup>3</sup>,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김모임연구소 박사후 연구원<sup>4</sup>

##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dolescents and Mothers of Ethnic Minority

Mikyung Lee<sup>1</sup> · Hyeonkyeong Lee<sup>2</sup> · Chang Gi Park<sup>3</sup> · Youlim Kim<sup>1</sup> · Sookyung Kim<sup>4</sup> · Hyeeyeon Lee<sup>1</sup>

<sup>1</sup>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Mo-im Kim Nursing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Mo-im Kim Nursing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up>3</sup>Research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USA

<sup>4</sup>Postdoctoral Researche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Discrimination experienced in the early stages of life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is known to affect depression and also adversely affect health throughout adulthood and old 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whether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and depression among mothers affect depression in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the data of 2018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in Korea. The study sample comprised 2,446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ged 11~18 and their moth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with SPSS/WIN 25.0 and STATA IC 16. **Results:** 18.4% of the adolescents (boys: 15.1%, girls: 20.5 %) felt sad or frustrated sometimes or more often for at least two weeks during the past year. Also, 8.3% of the adolescents and 29.6% of their mothers experienced discrimination during the past year. Boys were influenced more than girls by bullying at school (OR=5.17, 95% CI: 2.85~9.38), academic performance (very bad's OR=5.79, 95% CI: 1.54~21.63) and mother's depression (often's OR=2.31, 95% CI: 1.14~4.64). Girls were influenced more than boys b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R=2.72, 95% CI: 1.69~4.39). **Conclusion:** The findings showed that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in Korean society increases depression in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nd has different effects by gender. Therefore, a gender-specific and mother-inclusive intervention is recommended to prevent depression in ethnic minority adolescents.

**Key Words:** Ethnic groups; Depression;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 Corresponding author: Hyeonkyeong Le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3373, Fax: +82-2-2227-8303, E-mail: hlee39@yuhs.ac

- 이 연구는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20R11 A2069894).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Education) (NRF-2020R11A2069894).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4단계 두뇌한국(BK)21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rain Korea 21 FOUR Project fund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of Korea,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Received: Feb 2, 2021 / Revised: Mar 14, 2021 / Accepted: Mar 29, 202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다문화 인구는 귀화자 또는 결혼이민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포함하는 범위로서 매년 증가하여 국내 인구 중 약 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특히 주목할 점은 전국 출산율이 감소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청소년 내 다문화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여, 2012년 0.70%에서 2019년 2.52%로 7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2]. 이처럼 국내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 정도는 개선되지 않음이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9.2%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2015년 6.9%에 비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 소속이나 지위를 이유로 받게 되는 불공정한 대우를 의미하며 차별 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4]. 덧붙여 Gee 등(2012)의 연구에서 생애 초기의 차별 경험은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성인기, 노년기에 걸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5]. 또한 국내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 및 사회 적응의 문제, 차별이나 편견,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한국사회의 타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정신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선행연구에서 국내 다문화 청소년은 차별에 많이 노출될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우울감과 불안이 증가함이 밝혀졌는데[7] 미국 청소년 연구에서도 인종에 따라 차별 경험이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8]. 다양한 건강문제에 차별 경험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이 기존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고, 그 중 차별 경험과 정신건강 관련 연구가 절반 이상(54.7%)을 차지하여 차별 경험과 정신건강의 높은 관련성이 보고되었다[9].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차별이 연구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성별을 구분하여 차별 경험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우울감[10]의 영향 요인이 다르고 그에 따른 중재의 내용과 전달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므로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미국 다문화 부모의 차별 경험이 높을수록 본인의 우울감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녀의 정신 건강 수준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11]. Espinoza 등(2016)의 연구에서도 미국 다문화 청소년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차별은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2019)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82.7%를 차지하여 대부분 어머니이고 [3], 이들 중 31.6%가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의 주양육자로서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하여 부모의 차별 경험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또한 미국에서 어머니의 우울감이 다문화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3]가 보고되어 현재 국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의 우울감의 영향요인으로 어머니의 차별 경험과 우울감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2019)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 중 중학생의 16.8%, 고등학생의 26.3%는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2015년의 중학생의 16.1%, 고등학생의 21.9%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경험은 남자에 비해 여자, 15~17세, 학교에 다니지 않을수록,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성별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3]. 또한 가족 환경인 어머니의 출생 국가[14], 학교 환경인 교사 및 또래 친구로부터 관계형성의 어려움 및 차별과 학교 폭력 피해 등이 우울감을 포함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이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감은 개인이나 가정, 학교 중 한 가지 요인보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맥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감의 관련 요인을 어머니의 차별 경험과 우울감을 포함하여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우울감의 관련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과 차별 경험의 수준을 파악한다.
-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과 어머니의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2018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한 이차 자료분석연구이며,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2018년에 수집된 자료인 사례 17,550 가구 중, 전체 7,095명의 자녀 응답자에서 만 11~18세 연령인 자녀가 3,983명이었다. 동일한 가정 환경에 속한 2명 이상의 자녀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게 되므로 11~18세 자녀 중 가구 내 출생순서가 빠른 자녀 1명만 추출한 대상자수는 3,025명이었다. 이 중 설문을 완료한 어머니 대상자수는 2,619명이었고, 어머니, 자녀의 변수인 우울, 차별, 학교 폭력 등의 결측치를 제외한 뒤 자녀를 기준으로 2,446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구 중 11~18세의 자녀 및 자녀의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연령을 11~18세로 제한한 이유는 2020년부터 통일된 청소년 보호법의 제1장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설정하였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11세를 기준으로 청소년 연령을 제한하였다[15].

### 3. 연구도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2018년 실태 조사는 2015년 조사와 다르게 가구 구성표를 포함하여 각 개별 응답의 가구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지는 가구 구성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조사표, 배우자 조사표,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조사표의 4종류로 구성되었다. 전체 설문 139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자녀 조사표의 구체적 조사내용은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국적취득, 정서 및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 연구를 위해 그 중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국적취득, 정서 및 사회생활 영역 내 '연령, 성별, 우울감, 차별 경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업성적, 잘하는 언어' 등에 대한 설문 문항을 이용하였다.

#### 1) 우울감

우울감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슬픔과 절망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단일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은 4점 리커트 척도(1: 그런 적 없다 2: 가끔 느꼈다 3: 자주 느꼈다 4: 매우 자주 느꼈다)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의 우울감의 질문과 응답은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 2) 차별 경험

차별 경험은 지난 1년간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조사되었다. 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의 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과 응답은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 3) 일반적 특성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가구 관련 요인을 포함한 특성(성별,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업성적, 잘하는 언어, 학교급, 도시 및 농어촌, 가구 월소득), 어머니 관련 특성(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출생 국가)을 조사하였다.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은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말로 하는 헐박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왕따), 강제 심부름과 같은 괴롭힘, 돈 또는 물건을 빼앗김, 손,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에 갇힘,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행동 또는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 인터넷 채팅,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설과 비방,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조사되었다. 학업성적은 분석 결과 해석을 위해 '매우 좋다'가 가장 높은 점수가 되도록 1-5점 척도를 역코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잘하는 언어는 '한국어' 또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 인지 이분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은 다문화 청소년이 응답한 연령이라는 변수를 재범주화하여 초등학교(11~12세), 중학교(13~15세), 고등학교(16~18세)로 구분하였다. 가구 월소득은 200만원을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의 4개의 항목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어머니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가 가장 높은 점수가 되도록 1~5점 척도를 역코딩하였고 어머니의 출생국적은 다빈도순으로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 4. 자료수집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22일간 통계청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한 조사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등 록자료(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자료, 외국인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추출법으로 시행하여 1단계 집락계통추출, 2단계 층화계통추출 순으로 총 17,550 가구를 추출하였다. 조사항목수는 가구조사표(20항목),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용(72항목), 배우자용(38항목), 자녀용(47항목)이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는 이민자 또는 귀화자, 배우자, 자녀의 의견을 반영한 가구단위 조사이다. 본 연구는 한국통계진흥원의 MDIS (Micro Data Integration Service)에서 자료 활용을 승인받았다. 또한 Y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이차분석연구의 이유로 심의 면제 확인을 받았다(Y-2020-0198).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과 STATA IC 16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연구 변인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연구 변인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 분석하였다. 둘째,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한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대해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전체 대상자와 동일한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AIC, BIC, LR  $\chi^2$ 를 통해 모델 적합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

다문화 청소년 관련 요인, 어머니 관련 요인을 우울감 정도에 따라 빈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우울감의 빈도는 우울감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이 2,012명(82.2%)으로 가장 많았고 가끔 느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74명(15.3%)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2,446명 중 203명(8.3%)을 차지하였고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이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15.4%)보다 높았다( $\chi^2=106.28, p<.001$ ). 다문화 청소년 중 남자 청소년은 1,256명(51.3%)이었고, 우울감을 경험한 남녀의 비율 중 여자 청소년은 20.5%로 남자 청소년

15.1%에 비해 5.4% 더 높게 나타났다( $\chi^2=13.95, p=.003$ ). 학교급으로 초등학생(11~12세), 중학생(13~15세), 고등학생(16~18세) 연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고등학생이 727명(29.7%)으로 대상자 수가 가장 낮았고 우울감을 가장 많이 경험한 군은 중학생 연령으로 18.9%를 차지하였다( $\chi^2=5.46, p=.486$ ). 거주 지역 구분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가 13.0% 더 많았고 가구 소득은 월 200~400만원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4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울감과 관련된 변수로 차별 경험( $\chi^2=106.28, p<.001$ ), 학교 폭력( $\chi^2=120.71, p<.001$ ), 잘하는 언어( $\chi^2=25.24, p<.001$ ), 학교 성적( $\chi^2=92.48, p<.001$ ), 성별( $\chi^2=13.95, p=.003$ )은 우울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어머니는 우울감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 군이 1,711명(70.0%)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우울감과 교차분석 결과 청소년과 어머니 모두 전혀 우울하지 않은 군이 1,468명(85.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어머니가 매우 자주 우울하고 청소년은 우울하지 않은 군이 27명(75.0%)으로 많았다( $\chi^2=57.20, p<.001$ ). 차별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724명(29.6%)이었고 청소년의 우울감과 교차분석 결과 어머니가 차별 경험이 있고 청소년이 우울한 군이 21.8%로 어머니가 차별 경험이 없고 청소년이 우울한 군(16.0%)보다 5.8% 더 많았다( $\chi^2=14.15, p=.003$ ). 어머니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인 군이 1,144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의 우울감과 교차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이 '매우 나쁜' 어머니를 둔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33.3%였다( $\chi^2=33.50, p<.001$ ). 어머니의 국적은 중국계 한국인이 597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374명(15.3%), 필리핀인 330명(13.5%), 중국인 322명(13.2%), 일본인 237명(9.7%), 그 외 국적이 586명(24.0%)이었다. 그 중 우울감 경험률이 21.1%로 가장 높은 국적은 일본이었다( $\chi^2=13.16, p=.590$ ).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과 관련된 변수로 어머니의 우울감( $\chi^2=57.20, p<.001$ ), 차별 경험( $\chi^2=14.15, p=.003$ ), 주관적 건강 상태( $\chi^2=33.50,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2.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 관련 요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감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녀 전체에서 우울감의 관련요인으로 청소년이 경험한 차별,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업성적, 잘하는 언어, 성별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우울감은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Table 1.** Comparison of Adolescents' Depress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in Korean Ethnic Minority Family

Variables	Categories	n (%)	Depression				$\chi^2$ (p)	
			Never	Sometimes	Often	Very often		
			n (%)	n (%)	n (%)	n (%)		
Adolesce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o	2,243 (91.7)	1,898 (84.6)	300 (13.4)	34 (1.5)	11 (0.5)	106.28 (< .001)
		Yes	203 (8.3)	114 (56.1)	74 (36.5)	10 (4.9)	5 (2.5)	
	Bullying at school	No	2,312 (94.5)	1,947 (84.2)	319 (13.8)	35 (1.5)	11 (0.5)	120.71 (< .001)
		Yes	134 (5.5)	65 (48.5)	55 (41.0)	9 (6.8)	5 (3.7)	
	Academic performance	Very bad	33 (1.3)	17 (51.5)	10 (30.3)	5 (15.2)	1 (3.0)	92.48 (< .001)
		Bad	253 (10.3)	175 (69.2)	63 (24.9)	11 (4.3)	4 (1.6)	
		Moderate	1,308 (53.5)	1,083 (82.8)	197 (15.0)	22 (1.7)	6 (0.5)	
		Well	703 (28.7)	609 (86.6)	85 (12.1)	4 (0.6)	5 (0.7)	
		Very well	149 (6.1)	128 (85.9)	19 (12.8)	2 (1.3)	0 (0.0)	
	Preferred language	Korean	2,341 (95.7)	1,937 (82.8)	352 (15.0)	36 (1.5)	16 (0.7)	25.24 (< .001)
		Foreign language	105 (4.3)	75 (71.4)	22 (21.0)	8 (7.6)	0 (0.0)	
	Gender	Boy	1,256 (51.3)	1,066 (84.9)	168 (13.3)	15 (1.2)	7 (0.6)	13.95 (.003)
		Girl	1,190 (48.7)	946 (79.5)	206 (17.3)	29 (2.4)	9 (0.8)	
	School	Elementary	819 (33.5)	690 (84.3)	115 (14.0)	10 (1.2)	4 (0.5)	5.46 (.486)
		Middle	900 (36.8)	730 (81.1)	144 (16.0)	18 (2.0)	8 (0.9)	
		High	727 (29.7)	592 (81.4)	115 (15.8)	16 (2.2)	4 (0.6)	
	Residence area	Urban area	1,382 (56.5)	1,133 (82.0)	215 (15.6)	25 (1.8)	9 (0.6)	0.18 (.981)
		Rural area	1,064 (43.5)	879 (82.6)	159 (14.9)	19 (1.8)	7 (0.7)	
	Family income (won/month)	< 2 million	457 (18.7)	367 (80.3)	75 (16.4)	13 (2.9)	2 (0.4)	7.90 (.545)
2~ < 4 million		1,216 (49.7)	1,005 (82.7)	185 (15.2)	17 (1.4)	9 (0.7)		
4~ < 6 million		616 (25.2)	503 (81.7)	97 (15.7)	12 (1.9)	4 (0.7)		
≥ 6 million		157 (6.4)	137 (87.3)	17 (10.8)	2 (1.3)	2 (0.6)		
Mothers	Depression	Never	1,711 (70.0)	1,468 (85.8)	214 (12.5)	21 (1.2)	8 (0.5)	57.20 (< .001)
		Sometimes	619 (25.3)	462 (74.6)	131 (21.2)	18 (2.9)	8 (1.3)	
		Often	80 (3.3)	55 (68.8)	22 (27.4)	3 (3.8)	0 (0.0)	
		Very often	36 (1.5)	27 (75.0)	7 (19.4)	2 (5.6)	0 (0.0)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o	1,722 (70.4)	1,446 (84.0)	237 (13.7)	31 (1.8)	8 (0.5)	14.15 (.003)
		Yes	724 (29.6)	566 (78.2)	137 (18.9)	13 (1.8)	8 (1.1)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bad	18 (0.7)	12 (66.7)	4 (22.2)	2 (11.1)	0 (0.0)	33.50 (< .001)
		Bad	180 (7.4)	141 (78.3)	30 (16.8)	6 (3.3)	3 (1.6)	
		Moderate	619 (25.3)	480 (77.6)	121 (19.5)	15 (2.4)	3 (0.5)	
		Well	1,144 (46.8)	970 (84.8)	152 (13.3)	15 (1.3)	7 (0.6)	
		Very well	485 (19.8)	409 (84.4)	67 (13.8)	6 (1.2)	3 (0.6)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2,096 (85.7)	1,725 (82.3)	317 (15.1)	40 (1.9)	14 (0.7)	6.09 (.731)
		Middle school	46 (1.9)	39 (84.8)	7 (15.2)	0 (0.0)	0 (0.0)	
		High school	138 (5.6)	109 (79.1)	26 (18.8)	1 (0.7)	2 (1.4)	
		≥ University	166 (6.8)	139 (83.7)	24 (14.5)	3 (1.8)	0 (0.0)	
	Nationality	Korean-Chinese	597 (24.4)	509 (85.3)	75 (12.5)	10 (1.7)	3 (0.5)	13.16 (.590)
		Vietnamese	374 (15.3)	300 (80.2)	62 (16.6)	10 (2.7)	2 (0.5)	
		Filipino	330 (13.5)	270 (81.8)	49 (14.8)	8 (2.5)	3 (0.9)	
		Chinese	322 (13.2)	265 (82.3)	54 (16.8)	2 (0.6)	1 (0.3)	
Japanese		237 (9.7)	187 (78.9)	43 (18.2)	5 (2.1)	2 (0.8)		
Other countries		586 (24.0)	481 (82.1)	91 (15.5)	9 (1.5)	5 (0.9)		
Total		2,446 (100.0)	2,012 (82.2)	374 (15.3)	44 (1.8)	16 (0.7)		

**Table 2.** The Effects of Adolescent and Mother Factors on Depression in Ethnic Minority Adolescents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Adolesce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o	1.00		
		Yes	2.41	1.71~3.38	< .001
	Bullying at school	No	1.00		
		Yes	3.42	2.31~5.06	< .001
	Academic performance	Very bad	5.22	2.26~12.04	< .001
		Bad	2.28	1.31~3.95	.003
		Moderate	1.16	0.71~1.91	.549
		Well	0.95	0.56~1.60	.841
		Very well	1.00		
	Preferred language	Korean	1.00		
		Foreign language	1.71	1.08~2.69	.022
	Gender	Boy	1.00		
Girl		1.51	1.21~1.88	< .001	
Mothers	Depression	Never	1.00		
		Sometimes	1.84	1.44~2.35	< .001
		Often	2.19	1.29~3.71	.004
		Very often	2.06	0.93~4.57	.075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o	1.00		
		Yes	1.07	0.84~1.35	.601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bad	1.77	0.62~5.07	.289
		Bad	0.92	0.58~1.47	.731
		Moderate	1.22	0.88~1.69	.231
		Well	0.85	0.63~1.16	.305
		Very well	1.00		

AIC=2,513.32, BIC=2,623.56, LR  $\chi^2(16)=229.91$ ,  $p < .001$   
Log likelihood=-1,237.66, Pseudo  $R^2=.09$

CI=Confidence interval; OR=Odds ratio.

하였는데 척도의 단계별 상향 이동에 따른 상대적 교차비를 확인할 수 있는 순서형 로지스틱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추정해 모든 범주의 종속변수에 대해 회귀계수의 값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인 평행선 가정을 검정하였다. 평행선 검정 중 Wald test 결과  $\chi^2=22.30$ , 자유도=32,  $p=.899$ 으로 평행선 가정을 기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울감 4점 척도의 단계별 상향 이동에 따른 교차비가 동일하다는 점을 밝혔다. 모형 적합 검정 결과 AIC: 2,513.32, BIC: 2,623.56, LR  $\chi^2(16)=229.91$ , 유의 수준  $p < .001$ 이고 모수추정값은 Log likelihood=-1,237.66, 설명력은 Pseudo  $R^2=.09$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 중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OR=2.41, 95% CI: 1.71~3.38),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OR=3.42, 95% CI: 2.31~5.06).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한 청소년을 기준으로 ‘매우 나쁜’ 청소년의 경우(OR=5.22, 95% CI: 2.26~12.04)와 ‘나쁜’ 청소년의 경우(OR=2.28, 95% CI: 1.31~3.95), 한국어에 비해 어머니 나라

의 언어를 더 잘하는 경우(OR=1.71, 95% CI: 1.08~2.69), 남자에 비해 여자인 경우(OR=1.51, 95% CI: 1.21~1.88), 어머니가 전혀 우울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끔 우울한 경우(OR=1.84, 95% CI: 1.44~2.35)와 자주 우울한 경우(OR=2.19, 95% CI: 1.29~3.71)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 3. 다문화 청소년 남녀에 따른 우울감 관련 요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차별 경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업성적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감으로 나타났다(Table 3). 남자 청소년에서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OR=2.15, 95% CI: 1.31~3.54) 우울감이 증가하였다. 또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당한 경우(OR=5.17, 95% CI: 2.85~9.38)는 남녀 전체를 분석한 우울감 교차비 3.42와 비교하여 더 높았다.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한

**Table 3.** The Effects of Adolescent and Mother Factors on Depression in Ethnic Minority Adolescents by Gender

Variables	Categories	Boy			Girl				
		OR	95% CI	<i>p</i>	OR	95% CI	<i>p</i>		
Adolesce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o	1.00			1.00			
		Yes	2.15	1.31~3.54	.003	2.72	1.69~4.39	<.001	
	Bullying at school	No	1.00			1.00			
		Yes	5.17	2.85~9.38	<.001	2.44	1.44~4.14	.005	
	Academic performance	Very bad	5.79	1.54~21.63	.009	4.83	1.63~14.31	.005	
		Bad	2.16	0.88~5.33	.093	2.40	1.18~4.88	.016	
		Moderate	1.35	0.59~3.08	.478	1.01	0.54~1.88	.986	
		Well	1.09	0.46~2.58	.846	0.83	0.43~1.61	.579	
		Very well	1.00			1.00			
	Preferred language	Korean	1.00			1.00			
Foreign language		1.60	0.80~3.19	.186	1.80	0.97~3.33	.064		
Mothers	Depression	Never	1.00			1.00			
		Sometimes	1.90	1.32~2.73	<.001	1.76	1.27~2.45	<.001	
		Often	2.31	1.14~4.64	.019	2.13	0.93~4.88	.075	
		Very often	2.22	0.81~6.08	.120	1.88	0.49~7.26	.362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No	1.00			1.00			
		Yes	1.16	0.82~1.66	.404	1.00	0.72~1.39	.988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bad	1.51	0.32~7.05	.602	1.84	0.40~8.37	.431	
		Bad	0.88	0.45~1.74	.722	0.98	0.51~1.89	.962	
		Moderate	1.15	0.68~1.79	.696	1.34	0.86~2.10	.193	
		Well	0.80	0.51~1.25	.332	0.90	0.59~1.38	.637	
		Very well	1.00			1.00			
				AIC=1,159.64, BIC=1,252.08, LR $\chi^2(15)=107.47$ , $p < .001$ , Log likelihood=-561.82, Pseudo $R^2=.09$			AIC=1,380.20, BIC=1,471.67, LR $\chi^2(15)=115.89$ , $p < .001$ , Log likelihood=-672.10, Pseudo $R^2=.08$		

CI=Confidence interval; OR=Odds ratio.

경우에 비해 ‘매우 나쁜’ 경우(OR=5.79, 95% CI: 1.54~21.63), 어머니가 전혀 우울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끔 우울한 어머니를 둔 남자 청소년의 경우(OR=1.90, 95% CI: 1.32~2.73)와 자주 우울한 어머니를 둔 남자 청소년의 경우(OR=2.31, 95% CI: 1.14~4.64)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특이한 점은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업성적, 어머니의 우울감으로 인해 우울할 교차비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았다.

여자 청소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여자 청소년은 특히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OR=2.72, 95% CI: 1.69~4.39) 우울감이 증가하여 남자 청소년의 교차비 2.15보다 더 높았고, 학업성적에 대해 ‘매우 우수’ 한 경우에 비해 ‘매우 나쁜’ 경우(OR=4.83, 95% CI: 1.63~14.31)와 ‘나쁜’ 경우(OR=2.40, 95% CI: 1.18~4.88) 우울감이 증가하였으나 남자 청소년의 ‘매우 나쁜’ 경우의 우울감 교차비보다 낮았다.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과 어머니의 우울감 역시 남자 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남자 청소년의 결과에 비해 각 2.44 (CI: 1.44~4.14), 1.76 (CI: 1.27~2.45)로 교차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분석 모형 적합도는 남자 청소년의 분석 결과 AIC: 1,159.64, BIC: 1,252.08, LR  $\chi^2(15)=107.47$ , 유의수준  $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모수 추정값 Log likelihood=-561.82, 설명력은 Pseudo  $R^2=.09$ 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모형 적합도는 AIC: 1,380.20, BIC: 1,471.67, LR  $\chi^2(15)=115.89$ , 유의수준  $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모수 추정값 Log likelihood=-672.10, 설명력은 Pseudo  $R^2=.08$ 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 다문화 청소년의 어머니의 우울감과 차별 경험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문

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 학교 폭력, 학업성적, 잘하는 언어, 성별, 어머니의 우울감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성별에 따라 우울감 관련 요인의 차이를 밝혀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의 우울감을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데이터와 비교하면 2018년 기준 27.1%로 본 연구결과의 18.4%보다 더 많은 청소년이 우울감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16].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16]에서 남자 청소년은 21.1%, 여자 청소년은 33.6%가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5.4% 더 우울감을 경험하여 여자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이 더 높다는 점이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로 분석한 국내의 연구[17]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진 점이 본 연구결과와 일치했는데 특히 친구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이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예방을 위해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청소년기의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학교생활 내 친구 사이의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정책적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은 만연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차별 경험으로 인해 우울할 확률이 남자 청소년과 전체 청소년의 확률보다 더 높았는데 McGuinness 등(2012)[10]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학교 환경, 사회화, 남성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등의 사회적 도전이 많아지는 시기이면서 인지 및 대인 관계의 취약성이 더해져 광범위한 우울 증상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차별 경험이 높더라도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긴 청소년들은 우울감이 감소하였으므로[18],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중재에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동반되도록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차별 경험은 자녀인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의 영향 요인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빈도 분석에서는 차별을 경험한 어머니의 자녀가 5.8% 더 우울감을 느꼈다고 확인되었다. 선행연구[19]에서 미국 이민자인 부모와 청소년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부모와 청소년 본인의 차별 경험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 자녀와 본인의 차별 경험으로 인한 부모의 부정적인

건강 결과의 이유는 서로의 차별 경험에 대한 감정을 주고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잘하는 언어가 어머니 출생국가의 언어인 경우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20] 중국계 미국인 청소년의 영어 유창성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경험을 순차적 매개요인으로 하여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거주하는 국가의 언어능력은 문화적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흔한 근접지표로 다문화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밀접한 만큼 어머니의 문화적응에도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차별 경험 감소와 문화적응 증진을 포함하는 다층적인 중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우울감이 자녀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는데 선행연구[21]에서 일반 가정의 고위험 수준의 우울증을 가진 부모의 청소년 자녀는 우울증을 진단받을 확률이 더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만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 우울에 따른 교차비가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미국의 9-15세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우울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자녀의 내재화 및 외재화 문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외재화 문제, 정서적 문제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13].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자녀의 우울감 예방을 위해 어머니의 우울감을 사정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 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폭력 역시 우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남자 청소년은 학교 폭력 피해 경험에 따라 우울할 확률이 전체 청소년의 확률보다 더 높았다. 학교 폭력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22] 남자 청소년에게서 우울감을 크게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에서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문화 청소년이 8.0%로 비다문화 청소년의 2.6%에 비해 더 높았다. 6번 이상 치료받은 다문화 청소년은 1.7%로 0.3%인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약 6배 가량 높았다[23]. 2018년 국내 다문화 중학생과 비다문화 중학생의 우울 관련 요인 조사연구에서는[24] 다문화 중학생에게서 우울감에 대한 학업 성적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었지만 다른 연구[23]에서는 본인이 상위권 성적이라고 응답한 다문



화 학생이 30.2%(비다문화 37.2%), 하위권 성적이라고 응답한 다문화 학생이 42.5%(비다문화 34.9%)로 보고되어 다문화와 비다문화 중학생 간의 성적등급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외국의 다문화 중학생과 비다문화 중학생 대상의 비교 연구에서는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느낀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25].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폭력 피해 경험과 낮은 학업성적이 비다문화와 다문화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고 그 중 다문화 청소년에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우울할 확률이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 [23] 본 연구결과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주요 영향요인인 점과 일치하였다. 이전 연구[26]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편견과 인식의 차이, 친구, 가족, 친척 등의 네트워크의 약화로 인해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고 설명한 것을 토대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을 낮추고, 친구 및 가족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3년 단위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우울감을 포함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검사 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학교차원에서 우울감 관련요인인 차별 경험과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중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우울감의 정도와 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로 인해 우울감 정도가 다르고[27] 성별마다 각각 다른 요인이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 는 선행연구결과[10]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사춘기 시기의 호르몬 변화, 대인관계 지향의 정도, 반추적 사고 경향, 부정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 및 태도,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고 보고되었다[28]. 그러나 남녀의 차이는 우울의 영향 요인뿐 아니라 우울 관련 중재 후 평가, 우울 지속기간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지행동 치료로써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우울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을 증재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증재 연구가 더 유용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 우울 지속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국내 종단적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에게서 만 중학교 3학년 시점에 더 많은 우울감 증상을 보일수록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공격적 행동,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이 밝혀졌다[30].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우울감의 영향 요인, 효과적인 중재가 다르기에 우울 예방을 목표로 하는 증재 프로그램은 성별에 따른 요구도의 파악과 효과

적인 증재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이차 자료인 설문 도구의 우울감에 대한 질문이 지난 1년간 2주 동안의 슬픔 또는 절망감을 느낀 것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긴 시간에 대한 회상 편견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단일문항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청소년의 우울 측정을 단순화하여 관련 요인과의 경향성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써 역인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즉, 차별 경험이 우울감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 우울한 사람이 차별을 더 경험한 것일 수 있어 전후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에는 종단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이 다음 해의 공격적 행동, 우울감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선행연구가 있었으나[12] 1년 차이보다 더 장기적인 시간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설계를 통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우울감 차이를 분석한 점, 다문화 청소년 우울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 요인을 확인한 점이 의의가 있다.

##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을 확인하고, 차별 경험과 어머니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우울감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차별 경험, 학교 폭력, 학업성적, 잘하는 언어, 성별, 어머니의 우울감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우울감은 특히 학교 폭력, 학업성적, 어머니의 우울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고 여자 청소년의 우울감은 본인의 차별 경험에 의해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더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을 완화하는 증재 개발 시 남녀 차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 정도가 높으므로 학교와 가정에서 여자 청소년을 위한 지지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 학교 폭력, 학업성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감 개선을 위해 차별, 학교 폭력, 어머니의 우울 감소와 문화적응 증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또는 정책 마련을 제안한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Census for multicultural family [Internet]. Daejeon: Author; 2015 [cited 2020 August 28].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I501&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2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I501&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20).
2.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f adolescents in 2020 [Internet]. Daejeon: Author; 2020 [cited 2020 April 27].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1815](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1815)
3.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8 research of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Research report.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March. Report No.: 11-1383000-000384-12.
4. Krieger N. Embodying inequality: a review of concepts, measures, and methods for studying health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999;29(2):295-352. <https://doi.org/10.2190/m11w-vwx-kqm9-g97q>
5. Gee GC, Walsemann KM, Brondolo E. A life course perspective on how racism may be related to health inequ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12;102(5):967-974. <https://doi.org/10.2105/ajph.2012.300666>
6. Lee Y, Lee M, Park S. The mental health of ethnic minority youths in South Korea and its related environmental factors: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Adolescent Psychiatry*. 2019;30(3):88-99. <https://doi.org/10.5765/jkacap.190019>
7. Kim H, Won S, Choi S.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11;42(1):117-149. <https://doi.org/10.16999/kasws.2011.42.1.117>
8. Tobler AL, Maldonado-Molina MM, Staras SA, O'Mara RJ, Livingston MD, Komro KA. Perceived racial/ethnic discrimination, problem behaviors, and mental health among minority urban youth. *Ethnicity & Health*. 2013;18(4):337-349. <https://doi.org/10.1080/13557858.2012.730609>
9. Williams DR, Neighbors HW, Jackson JS. Racial/ethnic discrimination and health: findings from community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3;93(2):200-208. <https://doi.org/10.2105/ajph.93.2.200>
10. McGuinness TM, Dyer JG, Wade EH.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2012;50(12):17-20. <https://doi.org/10.3928/02793695-20121107-04>
11. Tran AG. Family contexts: parental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chil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14;53(1):37-46. <https://doi.org/10.1037/e603972013-001>
12. Espinoza G, Gonzales NA, Fuligni AJ. Parent discrimination predicts Mexican-American 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1 year later. *Child Development*. 2016;87(4):1079-1089. <https://doi.org/10.1111/cdev.12521>
13. Watson KH, Potts J, Hardcastle E, Forehand R, Compas B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in sons and daughters of mothers with a history of depress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12;21(4):657-666. <https://doi.org/10.1007/s10826-011-9518-4>
14. Ju HO, Park SY, Lee J. Mental health and health risk behavio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mothers' native country: Using data from the 11th (2015)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5.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7;23(1):101-110. <https://doi.org/10.4094/chnr.2017.23.1.101>
15. Kim SY. Etiology and treatment of central precocious puberty.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8;61(10):591-598. <https://doi.org/10.5124/jkma.2018.61.10.591>
16.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Statistics of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s 2019 [Internet]. Sejong: Author; 2019 [cited 2019 December 31]. Available from: <http://www.kdca.go.kr/yhs/>
17. Kim H, Won S. Discrimination by whom?: unraveling the effect of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of multi-ethnic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019;29(4):307-321. <https://doi.org/10.1080/02185385.2019.1682032>
18. Yu JH, Hwang SY.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the depression of adolescent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ime of parent-child conversion. *Journal of Youth Welfare*. 2018;20(4):169-193. <https://doi.org/10.19034/KAYW.2018.20.4.07>
19. Huynh VW, Rahal D, Mercado E, Irwin MR, McCreath H, Seeman T, et al. Discrimination and health: a dyadic approac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9:1-13. <https://doi.org/10.1177/1359105319857171>
20. Kim SY, Wang Y, Deng S, Alvarez R, Li J. Accent, perpetual foreigner stereotype,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as indirect links between English proficiency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 2011 ;47(1):289-301. <https://doi.org/10.1037/a0020712>
21. Loechner J, Sfarlea A, Starman K, Oort F, Thomsen LA, Schulte-Körne G, et al. Risk of depression in the offspring of parents

- with depression: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cognitive style, parenting and life event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2020;51(2):294-309.  
<https://doi.org/10.1007/s10578-019-00930-4>
22. Baldry AC. Bullying in schools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2003;27(7):713-732.  
[https://doi.org/10.1016/S0145-2134\(03\)00114-5](https://doi.org/10.1016/S0145-2134(03)00114-5)
23. Kim JM, Kong BG, Kang JW, Moon JJ, Jeon DW, Kang EC, et al. Comparative Study of Adolescents' Mental Health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and Monocultural Family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15; 26(4):279-287. <https://doi.org/10.5765/jkacap.2015.26.4.279>
24. Jang H, Park H.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between Non-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9; 32(1):10-9. <https://doi.org/10.15434/kssh.2019.32.1.10>
25. Yousefi F, Mansor MB, Juhari RB, Redzuan M, Talib MA.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ge,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Current Research in Psychology*. 2010;1(1):61-66.  
<https://doi.org/10.3844/crsp.2010.61.66>
26. Oh S, Kim H. A study on the cause and strategies of the school violence to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2013;9:71-95.
27. Yi Y, Pyo E, Jeong J, An J. Analysis of individual,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Korean adolescent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y gend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6;29(3):189-200.  
<https://doi.org/10.15434/kssh.2016.29.3.189>
28. Girgus JS, Yang K. Gender and depression.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015;4:53-60.  
<https://doi.org/10.1016/j.copsyc.2015.01.019>
29. Whittaker R, Merry S, Stasiak K, McDowell H, Doherty I, Shepherd M, et al. MEMO-a mobile phone depression prevention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development process and post-program findings on acceptability fro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012;14(1):e13.  
<https://doi.org/10.2196/jmir.1857>
30. Park H, Son SO. Latent patterns of depressive and somatic symptoms and their relationships to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20;37(1):57-68.  
<https://doi.org/10.14367/kjhpep.2020.37.1.57>